

배포 2026. 6. 30.(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30.(화) 12:00
(지 면) 2026. 7. 1.(수) 조간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대학) 성과평가 결과 발표

-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경상국립대, 포항공대, 국립목포대, 순천향대 우수대학으로 선정, 최대 28억 원 추가 지원(인센티브) 제공
- 사업 연차가 쌓인 국립대의 혁신성과 가시화,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바탕으로 혁신 노력 지속 유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1일(수) 특성화지방대학(글로벌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혁신성·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여, 5년간 1,000억 원(단독대학 기준)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필요시 지정취소까지 가능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공개평가’ 방식을 도입해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였다.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고, 관련 영상은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대학별 혁신성과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튜브 생중계 누적 접속자 수가 총 6,166명을 기록하는 등 대학 간 혁신성과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부는 6월 26일 ‘특성화지방대학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평가패널별 평가위원장이 대학별 평가결과와 주요 평가의견을 설명하였다. 특히, 평가위원장과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초기인 2025년 지정대학은 사업 추진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평가등급만으로 대학의 실행력과 혁신 가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향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행평가 결과('23.11.13. 선정, 10개 모델 대상)]

등급	대학명	평가 주요의견
A	▲경상국립대, ▲포항공대	대학 특성에 기반한 혁신모델 체계적 추진
B	▲ 통합 강원대 ▲ 통합 국립경국대, ▲ 통합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	성과 확산과 지속가능성 측면 보완 필요
C	▲국립순천대, ▲한림대	핵심성과 지표 달성 미흡, 성과창출의 지속가능성 미흡
D	▲ 통합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

※ 동일등급 내 대학명은 가나다순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12개교)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혁신계획의 이행 정도와 혁신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행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이 제시한 혁신모델이 실제 대학의 체질 개선과 지역혁신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동행평가는 그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다.

동행평가 결과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위한 조직·협력(거버넌스)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추진 하였으며, 포항공대는 교육·연구·국제화 전반에 걸친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혁신 과제의 이행이 지연·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 요건에 해당하여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연차평가 결과('24.8.28. 선정, 10개 모델 대상)]

등급	대학명	평가 주요의견
S	▲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대기업 연구센터 유치 등 지역산업 연계 성과 창출
A	▲국립목포대	대형 국책과제 수주, 연구센터 확충 등 성과
B	▲건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 통합 원광대 ▲한동대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 미달, 지속가능성 보완 필요
C	▲ 연합 대구·광주·대전보건대 ▲인제대	차별화된 혁신성과 미흡
D	▲ 연합 동아대·동서대	연합을 통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 미흡

※ 동일등급 내 대학명은 가나다순

한편, 2024년~2025년 선정된 총 17개 모델(23개교)*은 2025년의 성과를 점검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였다. 연차평가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보완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이다.

* 2024년 선정 총 10개 모델(14개교), 2025년 선정 7개 모델(9개교)

2024년 선정된 10개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사업 추진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국립대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특히,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는 평가대상 중 유일한 S등급을 받았다. 대학 통합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계를 기반으로 혁신모델을 구현하고,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지역산업 연계 성과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립목포대 역시 대학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형 국책과제 수주와 연구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다만, **연합**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연합모델만의 차별화된 혁신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차평가 결과(25.9.29. 선정, 7개 모델 대상)]

등급	대학명	평가 주요의견
A	▲순천향대	AI 중심 학사혁신과 지역 협력체계 신속 추진
B	▲경성대 ▲제주대 ▲ 통합 조선대+조선간호대 ▲한서대	사업 집행 및 자립화 기반 측면에서 보완 필요
C	▲전남대	정량성과 미흡, 혁신과제 추진성과의 우수성은 인정
D	▲ 통합 충남대+국립공주대	집행률 미흡 및 통합 추진 쟁점 합의 미흡

※ 동일등급 내 대학명은 가나다순

2025년 선정 7개 모델은 사업 추진 기간이 약 5개월에 불과하여 현 단계에서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이번 연차평가는 향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디딤돌의 성격을 갖는다. 이중 순천향대는 혁신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통합**충남대·국립공주대 모델의 경우 낮은 집행률과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수렴·소통 강화의 필요성이 보완과제로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보완계획을 검토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2~3년차 대학 수준의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계획 및 환류조치]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국고지원금을 확정한다. 우수대학(S·A등급)은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C·D등급)은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감액된다. 연차평가는 15% 이상, 동행 평가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 폭이 커진다. 아울러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성과 미흡의 원인분석 및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7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된다. 통합 충북대·국립 한국교통대의 경우 D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특성화지방대학 지정 취소 절차가 착수되며, 관련 국고지원금은 집행이 정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동행평가가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면, 연차평가는 대학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그간 대학들이 축적해 온 혁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한 대학에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하되, 성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지원금(안) 1부.
2.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 우수사례 1부.

담당 부서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32)
		담당자	사무관	김은미 (044-203-6265)
			주무관	남보라 (044-203-6238)

붙임1
2026년 특성화지방대학 지원금(안)

(단위: 억 원)

구분	순	대학명	평가등급	지원금
'23년 지정 (1기, 10개, 4년차)	1	경상국립대	A	275(+25)
	2	포항공대	A	275(+25)
	3	통합강원대	B	430
	4	통합국립경국대	B	330
	5	통합부산대+부산교대	B	430
	6	울산대	B	250
	7	전북대	B	250
	8	국립순천대	C	187.5(△62.5)
	9	한림대	C	187.5(△62.5)
	10	통합충북대+한국교통대	D	지정취소(예정)
'24년 지정 (2기, 10개, 3년차)	1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S	308(+28)
	2	국립목포대	A	210(+10)
	3	건양대	B	200
	4	경북대	B	200
	5	대구한의대	B	200
	6	통합원광대	B	275
	7	한동대	B	200
	8	연합대구·광주·대전보건대	C	170(△30)
	9	인제대	C	170(△30)
	10	연합동아대·동서대	D	미정(추가심의)
'25년 지정 (3기, 7개, 2년차)	1	순천향대	A	105(+5)
	2	경성대	B	100
	3	제주대	B	100
	4	통합조선대+조선간호대	B	137.5
	5	한서대	B	100
	6	전남대	C	85(△15)
	7	통합충남대+공주대	D	미정(추가심의)

※ 지원금은 부적정집행 패널티 반영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등급 내 대학명은 가나다순

붙임2 특성화지방대학 우수성과 사례

S 등급: **통연합** 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24년 지정)

혁신방향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연합하고, 공립대학을 통합하여, 창원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까지 종합 대응

① 대학-정부출연(연) 연합연구원 'GCIST' 설립

국립창원대가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대학 내 연합연구원(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 설립

- 대학-정출연 공동 투자협약 **약 1,000억 원** 체결
- 공동R&D **66명** 참여→ 논문 10건·특허 2건 창출, 연구인재 445명 양성
- **LG HVAC 연구센터(500억 원)** 유치: 기업연구시설을 캠퍼스 내로 들여 학생실습과 연계
- 캠퍼스 유휴공간을 기업 입주공간으로 전환, 산학협약 기업과 공동실험실 운영
- 효성중공업·두산에너지빌리티 현장미러형 실험실 및 통합연구실 22실 구축

② 국·공립 3개 대학 통합 및 다층학사제 운영

국립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3개 대학을 통합하고, 전문학사와 학사를 잇는 **다층학사제** 시행

- **총장-학장 정기 협의체** 구성, 통합 의사결정 프로세스 표준화, 의견수렴 채널 상시 운영
- 캠퍼스별 지역 주력사업과 연계한 고유 특성화분야 육성
- 통합 과정에서 대학 규정 정비 : **647건→ 365건**(282건 감축)

A 등급: 경상국립대('23년 지정)

혁신방향 국내 최초 우주항공 단과대학(CSA) 설립, 서울대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GADIST를 통해 대학이 지역 전략산업(우주항공·방산)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모델 제시

① 우주항공 단과대학(CSA) 설립 및 서울대 공동교육과정 개설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전문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서울대와의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중

- 한국형 **그랑제콜 모델**(학부+대학원+취업연계 5년 통합과정) 도입
- **서울대-경상국립대 공동교육과정** 국내 최초 개설(학점교류 → **공동학위** 도입 추진)
- 글로벌 Top-Class 교육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 복수학위제 운영(UTS, UMONS 등)
- 실제 경남 출신 입학생 비율 증가(**56%→74%**)하여 지역 정주 파급 효과 뚜렷

② GADIST 중심 한국형 NIAR 모델 구축

지역 전략산업(우주항공·방산)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기술원 GADIST 통한 지역산업 R&D 허브로 기능

- GADIST 관련 과제 총 **417.1억 원** 수주('26.2. 기준)
- 특화지구 신규 과제 총 217.9억원(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지상국 구축 등 포함)
- 지역 전략 수요+대학 연구 역량 결집하여 한국형 NIAR(미국 항공전문연구기관) 모델 완성

A 등급: 포항공대('23년 지정)

혁신방향 지역 전략산업 선도할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딥테크 R&D허브 구축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지역기업 연구역량 강화, **기술 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통해 투자 유치 확대

① 환동해글로벌연합아카데미 통한 지역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역 산업에 대한 특화교육 실시 및 국내 최초 메타버스 실습체계 구축하여 전문인재 양성

- 지역 전략산업 특화교육(이차전지·반도체·원자력) **39개 과정** 개설, 총 **1,558명** 이수
- 전략산업 기업 취업률 **72%**(경북 평균 58%)
- 환동해 메타버스 교육시스템 META-FAB 구축(나노공정 가상 공간·장비·공정 플랫폼)

② 기술창업 단계별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 구축

전주기 창업 지원체계(Scale-Up GROUND) 통해 창업기업 성장 지원하고, 기업 스케일업 거점 구축

- 포스텍 창업기업 누적 투자유치 **1,069억 원** 달성
- 교원·학생 창업기업 투자유치 **600억 원**(’22년 대비 2배 상승)
- 스케일업그라운드 사업비 770억 신규 확보 → 창업 퍼시픽밸리 조성

A 등급: 국립목포대('24년 지정)

혁신방향 친환경 무탄소 선박, 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

① 'Only-one 글로벌 연구센터' 확대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미래산업 연구거점을 구축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

- Only-1 연구센터 확대: 3개 → **6개 확대**, 국책과제 누적 **1,293억 원** 수주
- 글로벌 공동연구 19건, 특허 출원·등록 42건
- 글로벌 프로젝트 33건 운영, 글로벌 **멤버십 157개사 확보**

② 청년이 머무는 캠퍼스타운 조성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대학 캠퍼스 개선을 연계하여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학생 체류 시간이 많은 공간(학생회관, 도서관 인근)을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리모델링, 연간 공영·전시 프로그램 운영(32건 → 75건)
-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14개사 지원**(신규 고용 141명, 연매출 378억 원)

A 등급 : 순천향대('25년 지정)

혁신방향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설립(이공계열 학과를 4개 의료융합스쿨로 개편), 의료융합 교육과정 수출 등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AI의료융합산업*** 선도대학

* 의료와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미래산업

① AI의료융합 Triangle 캠퍼스 구축

아산(교육·연구)-천안(실습·실증)-내포(상용화)를 연결하여 **AI의료융합 산업 전주기 혁신체계** 구축

- (아산) 아산시와 공동 조성하는 **교육·연구캠퍼스 3만 평 부지조성** 완료
- (천안) AI 의료융합기술실증본부 신설(임상시험 트레이닝 센터, 의료융합 임상시험센터, AI의료빅데이터센터 구축)
- (내포) 순천향대-셀트리온-천안 병원 간 3자 업무협약 체결, 기업 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운영 등

② AI의료융합 교육·연구 혁신체계 구축

의과대학·공과대학·AI 분야를 융합하여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할 AI의료융합 인재양성 체계 구축

- AI의료융합교육원 설립 추진 및 학사구조 개편(디지털의료·의약바이오·첨단의료기기·헬스케어 서비스 스쿨 및 16개 전공 체제로 재편)
- **AI의료융합혁신기술원 신설** 및 AI의료융합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 대학·병원·기업이 참여하는 SIG(Special Interest Group) 기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